

남도 수묵의 부활 다시 꿈꾸며...

‘남도수묵화협회’창립전...27일~내달 2일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회원 48명 50~100호 대작 출품...참신한 젊은 작가 영입 등 추진



천명연 작 '수묵에 여행'

남도 미술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는 수묵화다. 소치 허련, 의재 허백련, 남농 허건 등 술한 작가들을 배출한 남도는 오랫동안 수묵화의 고장으로 명성을 떨쳤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지역 수묵 화단은 침체기에 빠져들었고 계보에 따라 그룹전 등을 여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남도 수묵화의 맥을 잇고 새로운 비전과 발전을 꿈꾸는 단체가 첫발을 내딛는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수묵작가들이 대거 참여한 '남도수묵화협회'(회장 김대원)가 창립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7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전관에서 열리는 이번 창립전에는 48명의 회원들이 50~100호 대작을 출품했다.

몇년 전부터 지역 수묵화의 재건을 위한 이야기들이 오고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올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올해 처음 치러진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도 모임을 꾸리는 자극제가 됐다. 9월 첫 모임을 가진 작가들은 학연, 지연 등 계보를 떠나 모임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고 현재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작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수묵화의 침체 원인에 대해 작가들의 다양한 시대정신과 투철하지 못한 작가관, 부분별한 작가 양성 등이라는 자기 반성도 있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수봉·김재일·박문수·박홍수·박희석·백현호·양정숙·윤의중·이경민·이선복·천명연·허달용·홍정호·오경규 작가 등이 수묵담채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협회는 지역 수묵화의 미래가 다양한 도전과 실험을 두려워 하지 않는 신선 작가들의 배출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젊은 작가 영입에도 적극 나설 계획



박홍수 작 '意境-소리(散調)'

이다. 또 수묵화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펼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대원 회장은 "수묵화를 비롯한 한국화의 구심점을 형성하고 수묵화의 뿌리에 대한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모임을 꾸렸다"며 "수묵비엔날레와 더불어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호 평론가는 "장르의 재료·매체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지금 현대 미술 추세에서 수묵은 그 재료로서 표현 가능성과 그림 자체로서의 차별성, 색을 소거하거나 함축시킨 상태인 먹색이 가질 수 있는 정신적 공감대를 넓히는 데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르"라며 수묵의 비전을 강조했다. 오프닝 행사 27일 오후 5시. 문의 062-360-843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안재훈 감독이 연출한 '소중한 날의 꿈'

애니메이션으로 떠나는 추억여행

광주독립영화관 28~31일 애니 기획전
29일 안재훈·이대희 감독과 대화



안재훈 감독

‘디즈니’, ‘마블’ 등 해외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연말 극장가를 점령한 가운데,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의 독립애니메이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광주에서 마련된다.

동구 서석동 광주독립영화관GIFT는 오는 28~31일 한국 독립애니메이션 6편을 만날 수 있는 ‘한국 애니 기획전’을 연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연필로 명상하기’를 운영하는 안재훈 감독의 대표작 3편을 만날 수 있다.

먼저 오는 28일 오후 3시 이효석, 김유정, 현진건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작품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 (2014)이 기획전의 문을 연다. 또한 감독의 지난해 작품인 ‘소나기’로 추억여행을 떠난다.

지난 2010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며 작품성과 재미를 인정받은 안 감독의 ‘소중한 날의 꿈’은 이번 기획전에서 12분이 추가된 감독판으로 만난다. 11년에 걸쳐 완성된 ‘소중한 날의 꿈’은 한 국민의 감성을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흘날리는 꽃잎, 쏟아지는 비 등을 섬세하게 연출해 영상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29일 오후 2시 상영 뒤에는 안 감독과 관객들이 대화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파닥파닥’ (2012)의 이대희 감독과 대화가 예정돼 있다.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물고기의 얼굴을 하고 등장하는 이 작품은 바닷가 횡집 수족관에서 벌어지는 물고기들의 갈등과 암투를 통해 비정한 인간 세계를 표현했다. ‘우리별 일호와 얼룩소’ (2014)는 ‘무림일곱의 사생활’, ‘아빠가 필요해’ 등을 연출한 장형운 감독의 작품으로, 배우 정유미와 유아인이 목소리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파격적인 이야기로 관심을 모은 ‘돼지의 왕’ (2011)은 연상호 감독이 ‘부산행’을 선보이기 전 연출력을 인정받은 작품이다. 탁월한 이야기로 자본력의 한계를 웃음으로 극복해냈다.

행사 기간 동안 관객에게 기획전 기념품을 선착순으로 나눠주고 안재훈 감독 등 지역 작가들이 가족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부대행사도 열린다. 무료 관람. 문의 062-222-189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Winter Frame, 겨울을 담은 창’

내달 7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임창민 작가전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풍경은 다채롭다. 소복히 내리는 눈은 온화함을 전하고, 눈을 얹은 나무들이 자리한 울창한 숲도 보인다. 파도가 넘실대는 겨울 바다도 눈에 띈다. 일본 교토, 스페인 톨레도, 중국 상하이 등에서 잡아낸 이 풍경들은 모두 ‘창’을 통해 작품에 나타난다.

광주신세계갤러리가 연말기획전으로 ‘Winter Frame, 겨울을 담은 창’을 마련했다. 내년 1월 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사진과 동영상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절묘하게 조합, 새로운 풍경을 프레임(frame)에 표현하는 임창민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수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머물렀던 장소에 고요함이 찾아온다. 오랜 역사가 묻어 있는 건축물, 현대적인 미술관의 로비와 호텔의 스위트룸, 빠르게 움직이는 기차와 비행기의 좌석과 같은 장소들이다. 임창민은 인적이 사라진 이런 공간 속의 창(窓)으

로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끌어들인다.

작품이 흥미로운 건 사진 속 창문 너머에는 미세하게 움직이는 영상이 절묘하게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정적인 실내공간을 찍은 그의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 보고 있으면 작품의 어느 한 부분이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소리 없이 차분한 창문 속 영상은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최소한의 움직임만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원하는 장소에서 가장 적절한 장면과 조우하기 위해 같은 장소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찾아가 이 오묘한 조화를 프레임 안에 담아냈다.

대구 계명대학교, 뉴욕 대학 대학원 등을 졸업한 임 작가는 뉴욕, 상하이, 홍콩, 서울, 대구, 부산에서 19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현재 계명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개관시간 오전 11시~오후 8시(금·일 오후 8시30분까지), 문의 062-360-127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Into a time frame-Shanghai Red Wall'

6개 사업 20억 지원...지역문화예술지원 신청하세요

광주문화재단 내달 8~22일 접수

광주문화재단은 2019년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를 2019년 1월 22일까지 진행한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전통, 다원 등 전 분야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 ▲문화예술교류지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청년예술인창작지원 등 6개 사업에 20여억 원을 지원한다.

내년 지원사업은 광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전문예술인 및 광주 소재 예술단체만 신청 가능하다. 초중고생이 50% 이상 사업수행자로 참여하거나 전문예술인 1~2인을 중심으로 한 동호회 형태 단체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기존 유형을 ▲기

초창작지원(설립 3년 미만 단체) ▲전문창작지원(3년이상 활동실적 단체) ▲개인예술가지원(만40세 이상 예술가 및 기획자)으로 단계별 재편성하고, 청년예술인창작지원은 별도사업으로 신설됐다.

집중지원사업(공연장 상주단체,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역특화문화거점, 문화예술교류지원)은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로 한정한다. 또한 ‘지원 휴식년제’는 지속 운영되며 개인은 최근 1년, 단체는 4년 연속지원을 받은 경우 이번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

접수는 오는 1월 8일~22일 오후 6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 공지사항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참고. 문의 062-670-744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 내구성보장 | 2중단열 |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 3.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 4.시공후

대한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특허공법

주택 맞춤디자인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시공전 | 시공중 | 시공후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자연을 소리...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